

한경 IB대상 영광의 얼굴들... 종합대상에 미래에셋대우



한국경제신문사가 주최하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후원한 '제12회 한국IB대상' 시상식이 22일 서울 중림동 한국경제신문사 다산홀에서 열렸다. 미래에셋대우가 최고상인 종합대상(금융위원장상)을 받았다. 뒤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정영국 삼성증권 투자금융본부장(인수금융), 김경호 한국경제신문 사장, 장병식 송실대 총장(심사위원장), 이명순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정정호 하나금융투자 실물금융본부장(대체투자), 정수형 BDA파트너스 본부장(베스트딜), 민재은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상무(베스트딜), 최정민 NH투자증권 이사(기업공개), 이경민 크레디트위스증권 IB 대표(M&A 재무자문), 김상태 미래에셋대우 사장(종합대상), 배영규 한국투자증권 IB3총장(주식발행), 주대영 KB증권 기업금융1본부장(채권발행), 심준형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M&A 법률자문), 유상수 삼일회계법인 실무본부 대표(M&A 회계실사), 구성민 키움증권 기업금융본부장(노베이션하우스), 김병준 기자 bjk07@hankyung.com

정부 "금융투자사 IB강화 돕겠다" 미래에셋대우 "ESG 역량 키울 것"

제12회 한국IB대상 시상식

금융당국이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은행(IB)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명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22일 서울 중림동 한국경제신문사 다산홀에서 열린 '제12회 한국IB대상' 시상식 축사를 통해 "종합금융투자 사업자가 IB 역할을 수행하도록 기업금융의 신용공여 확대를 허용하고 증권사가 적재적소에 모험자본을 공급할 수 있도록 먼저 대출을 신규 업무로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업무 과정을 짚어봐 달라"고 당부했다.

국내 IB 가운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종합대상을 차지한 미래에셋대우의 김상태 사장(IB총괄)은 수상 소감을 통해 "올해는 기업공개(IPO)를 필두로 하는 주식발행(ECM) 분야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시장이 주목받을 것"이라며 "미래에셋대우는 ESG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ESG 채권 인수에 힘쓰는 한편 기업별 ESG 이슈를 분석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이어 "향후 ESG와 연계된 인수합병(M&A) 등 지배구조 개선, 사회적 책임투자(SRI) 등의 영역에서 초대형 IB들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상은 기자 setee@hankyung.com

채용 플랫폼 1위 잡코리아 인수전, 대형 PEF끼리 격돌

본업철에 CVC-TPG 등 참여

국내 1위 채용 플랫폼인 잡코리아 인수전이 국내외 대형 사모펀드(PEF) 간 대결로 압축됐다.

2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잡코리아를 보유한 국내 PEF인 H&Q와 매각 주관사 모건스탠리가 이날 진행한 본업철에는 CVC캐피탈, TPG, MBK파트너스,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등 국내외 주요 PEF가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적극적인 후보자에는 이들 외에도 퍼

유일한 SI 호주 시크는 불참

인수후보와 컨소시엄 구성 예상

거래액 7000억 이상으로 뿔 뚫

미래, TA어소시에이즈 등이 포함됐다. 매각 측은 이르면 3월 초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잡코리아 인수전은 초반부터 흥행을 예고했다. 잡코리아가 압도적 1위 국내 채용 플랫폼이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안정적인 성장을 했기 때문이다. 잡코리아는 40%대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2위 업체인 사람인보다 점유율이 두 배 이상 높다. 현금창출력을 보여주는 상각전영업이익(EBITDA)은 2019년 500억원에서 지난해 10% 이상 늘었다.

매각 대상의 최대 관건은 가격이다. 인수전 초반만 해도 EBITDA 10배가량인 5000억원대로 거론됐으나 실적이 개선되면서 매각가도 덩달아 뛰었다. 대형 PEF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최소 7000

억~8000억원 수준에서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유일한 전락적 투자자(SI)로 주목받았던 호주의 채용 플랫폼인 시크는 불참한 대신 입찰에 참여한 인수 후보자 한 곳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안으로 선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크는 잡코리아가 국내 1위 업체지만 추가 성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전체 기업가치 평가 가격이 낮아 인수전 단독 참여로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예민 기자 why29@hankyung.com

'흑자 비행' 성공한 대한항공 사상최대 유상증자 순항 예고

주가, 신주발행가 47% 웃돌아 3조3159억 규모 내달 전망

대한항공이 3조3159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국내 기업이 주주 배정 방식으로 추진하는 유상증자 중 사상 최대 규모다. 현재 주가가 신주 발행가격을 크게 웃돌고 있음을 고려하면 무난히 자금 조달에 성공할 것이라 관측에 힘이 실린다. 코로

Table with 2 columns: Item and Value. Includes items like '공모금액', '신주발행수량', '신주발행가격', '청약일', '주말일'.

나19 사태에도 지난해 흑자를 거둔 데다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한 기대까지 커지고 있어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청약에 참여할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유상증자를 위해 다음달 4~5일 주주들과 우리사주조합을 상대로 청약을 진행한다. 오는 26일 그동안의 주가 흐름을 반영해 신주 발행가격을 확정할 예정이다. 새로 발행할 주식은 총 1억 7361만1112주로 현재 발행주식(1억7420만9713주)과 맞먹는 수준이다.

신주 발행가격이 시세보다 40% 이상 저렴해 대한항공 임직원과 주주 모두 청약에 많은 관심을 보일 전망이다. 22일 대 한항공 주가는 2만8200원으로 마감해 신주 발행 예정 가격(2만9100원)을 47.6% 웃돌고 있다. 증자 계획을 밝힌 지난해 11월 16일 이후로도 4.6% 올랐다. 신주 상장일(3월 24일)까지 주가가 폭락하지 않는 한 두둑한 시세 차익을 거둘 가능성이 높다. 초대형 유상증자를 통해 국내 1위 국

적 항공사로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 기대가 주가를 떠받치고 있다는 평가다. 대한항공은 이번 증자로 조달한 자금 중 1조4999억원을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투입할 계획이다. 거래가 마무리되면 대한항공은 단숨에 세계 7위 초대형 항공사로 도약한다. 최악의 경영 환경에도 흑자를 내며 버티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종식되면 큰 폭의 성장세를 나타낼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대한항공은 수

요에 급한 여객 수요에 대해 항공료 인상을 통한 전략을 통해 지난해 1094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다만 유상증자 청약의 흥행과 별개로 신주 상장 직후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는 평가다. 주주들이 차익 실현을 위해 신주를 팔자마자 곧바로 매도에 나설 수 있어서다. 이번 발행 예정인 신주 중 한전KIL의 목표 청약물량(4188만4816주)과 보호예수가 걸린 우리사주조합 배정물량(3472만222주) 등을 제외해도 상장 후 곧바로 팔 수 있는 물량만 9000만 주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상증자 이후 대한항공 공종발행주식의 25%가 넘는 규모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카카오 계열사 야나두, 내년 상장 추진

한투·삼성증권, 상장 주관사로 기업가치 1조원대 목표

카카오 계열사들의 기업공개(IPO)가 이어지고 있다.

카카오 계열사 야나두는 한국투자증권과 본업철인 IPO 절차에 들어갔다고 22일 발표했다.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은 지난해 카카오 계열사 가운데 처음 상장한 카카오게임즈 상장을 주도했다. 야나두는 내년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놓고 검토 중이다. 영어교육 관련 콘텐츠, 학습케어 서

비스 등을 제공하는 야나두는 지난해 1월 카오키즈와 합병하며 야나두로 통합법인명을 정했다. 이후 학습 목표 달성 관련 보상 앱 '유엔두'를 중심으로 유아용 콘텐츠와 영어, 건강관리, 맞춤형 강의 등 다양한 교육 서비스로 사업 분야를 확장하고 있다.

김정수 야나두 공동대표는 "올해는 지난해 선보인 홈트레이닝 중심의 헬스케어 서비스 '야나두 피트니스'를 통한 사업 확대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급성장하고 있는 대

표 언택트산업 e러닝과 홈트레이닝 등 분야를 아우르는 기업으로 성장해 1조원의 기업가치로 내년 상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현재 야나두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지, 카오뱅크, 카오페이 등 카카오 계열사들이 IPO 계획을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뜨거워진 시기를 활용하려는 전략이다.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향후 카오재팬, 카오카오키즈 등 카오오 자회사 및 계열사들의 상장 러시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민기 기자 kook@hankyung.com

티몬, IPO 본격화... 품값 2조원

전자상거래 업체 티몬이 본격적인 상장 준비에 들어갔다. 2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티몬은 올 상반기 거래소에 상장 예비사서를 청구하고 연내 코스닥 시장 상장을 마무리지를 계획이다.

티몬은 최근 3000억원 규모의 상장 전 지분투자(프리IPO) 유치에 성공하면서 재무 건전성을 개선했다. 이번 투자로 티몬은 기업가치를 1조원대 후반으로 평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IB 업계는 티몬이 상장 과정에서 최소 2조원대의 기업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직매입 매출을 포함한 2019년 매출은 6721억원으로 주가 매출비율(PSR) 3배를 적용하면 약 2조원으로 계산된다. 다만 사모펀드(PEF)의 지분율이 높다는 점은 걸림돌이라 지적도 나온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A large real estate advertisement grid containing various listings for properties, land, and services. Includes sections for '부동산', '당진 땅 매매', '경기이남 고수익성 빌딩', '상업지역(토지)', '4호선 고수익빌딩', '서울시내 빌딩', '사옥용 빌딩', '신축 부지', '빌딩수익 7%', '사옥&수익형 빌딩', '강남대로 역1분 신축부지', '서울역세권 수익용빌딩', '제네시스 전속물건', '특 환승역점 B/D', '부동산개발 자금대출', '금융상담', '투자1억~3억', '신주발행 및 실적 예고부 최고', '사채 조기상환 공고', '부동산 개장 공고(1차)', '공정을 이끌어내는 스위치 생각이 바뀌는 순간'.